

결 정

2018 - 1066 신문윤리강령 위반
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회

주 문

울산매일 2018년 2월 2일자 12면 「담백한 피자에 짜릿한 수제맥주...이것이
‘이태원의 맛’」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울산매일은 「[울산 맛집] 피맥 전문점 ‘세컨드피자’」 컷 아래 특정 업소를 여러
장의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전면 기사를 게재했다. 이 같은 지면
제작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
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,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
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⑦(보도자료의 검증)을 위반했다고
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

위 원 정 송 호 정송호

장 명 국 장명국

박 재 현 박재현

장 인 철 장인철

김 규 식 김규식

강	희	김희
하	윤	수
김	영	모
박	미	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「보도준칙」 ⑦(보도자료의 검증)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